**파피용**

**[수요일팀]독수리 – 조0연**

1. **저자소개**

-베르나르 베르베르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며,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헤르만 헤세 등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로 선정된 바 있는 소설가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1961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났다. 「별들의 전쟁」세대에 속하기도 하는 그는 고등학교 때는 만화와 시나리오에 탐닉하면서 『만화 신문』을 발행하였고, 이후 올더스 헉슬리와 H.G. 웰즈를 사숙하면서 소설과 과학을 익혔다.

 베르나르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눈높이, 예를 들면 개미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세상을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현실을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한다. 300만 년 밖에 되지 않는 인간의 오만함을 1억만년이 넘는 시간동안 살아남아온 개미들의 눈에 빗대 경고하고 있다.

1. **작품의 시대적 배경**

많은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에 의해 지구가 황폐해져버린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있다.

1. **내용요약**

 움직이는 우주 범선 <파피용>을 타고 1천 년간의 우주여행에 나선 14만 4천 명의 마지막 지구인들. 반목과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는 인간에 의해 황폐해진 지구를 떠나 새로운 희망의 별을 찾아 나서는 이들의 모험담이다. 지구가 위태롭다. 인류는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한 항공 우주 엔지니어가 태양빛을 추진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우주선에 14만 4천 명의 지구인을 태우겠다는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꾼다. 여행 기간 1251년, 거리 20조 킬로미터, 40제곱킬로미터 넓이의 돛을 달고 미지의 별을 향해 날아오르는 우주 범선

1. **감상평**

평소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별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언젠간 우리가 살고있는 지구에서 인류의 멸망이 다가온다면 또다른 지구로 이사가지 않을까 상상했던터라 이 책이 더욱 흥미로웠다. 아무리 빠른 빛의 속도로 가더라도 몇백년 몇천년을 가야하는 거리를 어떤 우주선을 이용해 이동할지 그때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다른사람의 생각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베르나르의 소설에서 긴 시간의 여행동안 지구에서 있던 역사를 반복한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선택을 통한 사람들이 함께해도 갈등이 생기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며 비슷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을 보며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한다는 말이 떠올랐다. 또한 새로운 행성에 도착했을 때 그 행성에 공룡과 비슷한 생물들이 살고있었고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로 인해 멸종한다는 이야기와 유일하게 살아남아 들어간 인간 이 아담과 이브라고 불린다는 이야기를 보며 베르나르의 창의력이 정말대단하다고 느꼈고 흔히 알고 있는 사실과 이야기를 이용하여 더욱 생동감있는 소설이었다.